



## 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대통령 서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3월 2일) 아침에 출근하여 국내 언론비서실에서 보낸 언론보도 요약 보고를 보니 ‘혁신 뭉치냐, 이게 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동안 원체 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던 터라 혁신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다른 기사 다 훑어놓고 그 기사부터 얼른 읽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억장 무너지는 기사이더군요. 요지는 혁신의 ‘혁’ 자만 들어도 머리 아파하는 공무원이 많고, 성과는 생색용이고, 혁신동아리 활동이라는 것도 잡담이나 나누고 시간이나 보내는 데 불과하여 혁신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걸돌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도 공무원의 생생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니 나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대꾸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관저에 돌아오니 아내가 또 이 기사를 오려서 내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하는 일이 다 헛수고라고 하니 무척 마음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저야 혁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이미 상당한 성과를 확인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터이니 이만한 기사에 마음 흔들릴 일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하자는 일이라서,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열심히 혁신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회의를 갖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되어 이 편지를 씁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 이미 수백 건의 혁신 성공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내 놓고 있고 그 중 수십 건의 모범사례가 ‘변화를 선택한 리더들’ 정부가 변하고 있다 등의 책으로 출판되어 공무원 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혁신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설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70% 이상이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60% 이상이 혁신활동과 자기 업무와의 연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짜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소하고 비방하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도 있겠지요, 언제 어떤 일이나 그런 사람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부가 다 그렇다고 치부하거나 그 사업이 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과수원에 사과 몇 알이 상한 것이 있다고 이 과수원 사과는 다 상했다 사과농사는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공무원 100퍼센트가 혁신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혁신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서거나 순전한 생각으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공무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선의를 믿고 역량을 믿습니다. 냉소하고 불평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하는 이런 저런 평가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여 자량과 보람을 함께 나눕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05년 3월 3일

대통령 노무현

## 《한덕수 전 국무조정실장님 이임사》



국무조정실 가족여러분

작년 2월초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임하여 1년 1개월 근무를 마치고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무총리의 국정을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을 직·간접으로 돕기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 가족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기본으로 더 나은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부터 분권형 국정운영을 시작한 이래 총리 국무조정실은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었던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업무 bad에 직면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탁월한 능력과 인내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차분하게 처리해 나감으로써 대통령으로부터도 “분권형 국정운영은 성공적이었다.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힘을 합치고 협력해서 일을 잘해 주었다. 나는 일상운영은 총리에게 맡기고 신문에 나면 총리가 결단을 해주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궁금하면 보고서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보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1년간 해온 일을 일일이 예시하긴 어렵습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국무조정실이 혁신작업에 참여하여 거의 말단수준의 혁신을 상위그룹에 안착시킨 일은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정들었던 1청사 10층을 떠납니다만 자주 총리실에 와야할 것 같습니다. 총리께 업무보고도 자주 들릴 것이고 각종회의에도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일했던 여러분에게 많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써 주신 여러분께 충분히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한 적이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이해해 주십시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선진한국을 실현하는데 중심에 서있는 총리실을 도와 제 개인적, 공적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큰 도움을 주신 여러 국무조정실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작별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혁신”, “실천하는 혁신”

혁신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 혁신아이디어

- ▶ 국무조정실 뺏지를 공무원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사회수석조정관실 김세용)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뺏지를 착용한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출입할 수 있도록 건의...
- ☞ 뺏지 유출 위험이 높고, 분실과 재배부 과정이 엄격하지 못하고, 타 부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조실만 허락해줄 수 없다(청사관리소 방호계의 답변)
- “청사관리소 방호계 혁신을 위하여... 파이팅 !!!!!”

- ▶ 시간외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지?(사회수석조정관실 김세용)  
하루 종료시간을 24:00에서 04:00으로 바꾸면, 업무효율 증대, 예산절약 가능 **예.미.래**

## 새미래 창간호 혁신퀴즈 정답

전	락				국	무	조	정	실
자			타	성		한		보	
정	보	공	개			경	직	화	
부		무			정	쟁			
			원	조			혁	신	
					조	새		로	
문	소	리		타	운	미	팅		빙
제	정		과	수		래		로	고
의	심		제		세			드	
식	사		물	찬	제	비		맵	

- ◆ 추첨결과(3. 18)  
이희영(심사평가 1)  
김기영(심사평가 1)  
배찬영(심사평가 1)  
최연수(규제개혁 1)  
박진호(혁신팀)

※ 황규진 경감(복지심외관실) 입회하에  
공정하게 추첨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실 근무 2주일을 넘어서서...



〈교육문화심의관 김장실〉

문화관광부에서 근무하다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심의관으로 근무한지 이제 2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약간 경직된 몸을 이끌고 심의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 배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생소한 분야에 대한 업무 파악으로 정신없이 지난 2주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받은 인상은 총리실 직원들이 회의와 회의, 서류와 서류로 이어지며 대단히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한 부처나 기업(혹은 단체) 단위의 미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가적인 거시적 이익을 토대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를 조정하고, 국가전체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지혜와 기술, 그리고 엄청난 독심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문화심의관실이 맡은 일은 교육, 문화, 청소년, 보훈 등 국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최대한 키워내어 명실 공히 21세기 선진한국을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에 의하면 19세기나 20세기에는 한 국가의 국력이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 감성의 코드가 지배하는 21세기는 매력적인 문화와 강한 지적 능력이 중심이 되는 소프트 파워가 지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뒤돌아 볼 때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며 인류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로마, 대영 제국, 그리고 오늘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이거니와 피지배인들이 자발적으로 흠모해마지 않는 최고의 문화력을 갖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소프트 파워가 강한 초일류국가가 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문제, 한류 등 현재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는 문제 등 문화 분야에서 사급히 해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이런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없다고 봅니다. 사안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교육은 백년대계 이고, 문화는 천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과 문화는 목전에 전개되는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긴 호흡을 가지고 신중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문화심의관실은 우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관계기관들의 정책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기관 간 상충되는 이익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감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연극, 영화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쁜 일상사에 얽매어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감성을 개발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미래

고금의 혁신사례 - 강희맹 1424~1483, 세종 6~성종 14)

## 사람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 쓰소서

지난 옛날을 두루 고찰해보았더니,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발단은 모두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고 가려서 쓰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아래로 미천한 선비와 학문이 미숙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텅 비우고 널리 불러들여, 경전을 강론하면서 진리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을 얻으면, 큰 재목은 크게 이루어지고, 작은 재목은 작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분별하여, 인재를 쓰는 방법에 더 이상 남은 제책이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교화를 숭상해서 현명한 사람을 널리 불러 모으고, 마음을 밝게 해서 인재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비우고 인재를 등용해서, 변화하는 추세에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할 때 인재를 알아보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인재가 임금과 맞지 않을 때 통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임무를 맡기고 성공을 책임지게 한다면, 아래에는 공경

하지 않을 신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등용하고 다른 사람을 버린다면 사람들은 결국 임금이 좋아하는 것에 감정을 맞추고, 임금이 숭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임금의 욕구에만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간사한 것이 생겨나고 혼란이 자라납니다. 세상에 완전한 재능을 갖춘 사람은 없지만, 적합한 자리에 기용한다면 누구라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재능있는 사람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장점을 취하면 누구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완전히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만 보완하면 누구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능을 살펴봐도 취할 것이 없고 덕을 따져보아도 본받을 점이 없는 사람, 백성들에게 해만 끼치고 다스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권력을 믿고 멋대로 포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교화를 통해 민심을 순박하게 하는 데 가외와 같은 존재'이므로 마땅히 물리치고 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새미래**

민간의 혁신사례 **WOONGJIN COWAY**

##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 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 가정용품 판매업체로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이루어 냈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제품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바꾼 것이다.

사실 웅진코웨이가 판매하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은 소비자가 관리하기 어려워 정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

한 제품이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에 착안하여 리스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임대한 가정에 대해 '코디'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해주는 전략을 채택했다. 그 결과 초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고, 1999년부터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30%가 넘는 성장을 이룩했다. BMW같은 선진 자동차업체도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일정기간 리스를 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선보인 것을 보면 웅진코웨이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한국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앞선 사례라 하겠다. **새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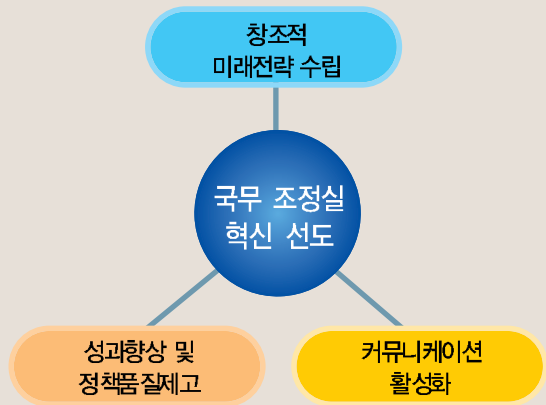
## 새미래(주니어보드) Mission

### 국무조정실의 Mission 및 Vision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을 실현하는 국무조정실  
품질 높은 정책조정, 조화로운 국정선도



### 새미래(주니어보드) Mission



## 새미래(주니어보드) 세부활동 방안

### ▶ 성과향상 운동(POP-UP)전개

#### ■ 추진 방향

전 직원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 조성하여  
『혁신생활 일상화』토대 마련

#### ■ 추진 내용

- 『새미래』발간
  - 격주 또는 월간 단위로 발간
  - 국무조정실 혁신활동 및 혁신 우수사례 소개
- 혁신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 우수 혁신 아이디어 발굴자에게 혁신망치(inno-hammer) 뿔치 수여,
  - 제시된 혁신아이디어의 활용 등에 관한 환류(feed-back) 실시
- 획기적 성과보상
  - 매년 우수 성과 달성자(3명 내외)를 엄선, 해외연수, 승진 등 인센티브 부여

### ▶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운동 전개

#### ■ 추진 방향

부서별 매뉴얼 작성으로 일하는 방법을 공유, 품질 높은 정책 조정,  
일 잘하는 국무조정실 구현

#### ■ 추진 내용

- 국내외 우수 업무 매뉴얼 모델 조사, 전파

- 우리 실 핸드북 업무 매뉴얼 발간 추진

- 국무조정실 비전, 미션, 성과 목표, 혁신체계, 주요 업무 등

- 각 부서별 업무 매뉴얼 발간 추진

- 파견 직원이 많고, 인사 이동이 잦은 상황 극복

### ▶ 직원 복지 확대

#### ■ 추진 방향

혁신을 직원 복지와 연계하여 싹트는 혁신 활동 전개 분위기 조성

#### ■ 추진 내용

- 새미래내에 직원 복지 발굴 전담 분임 지정
  - 전담분임은 민간 및 타 부처 복지사례 조사 분석
  - 발굴된 복지사례는 회의 시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성 검토
  - 인트라넷 새미래방에 직원 복지 건의방 마련, 의견수렴
- 월 1회 문화활동의 날 지정 검토
  - 심의관실, 과(팀)별 공연·경기 등 문화활동 기회 부여

### ▶ 사회 봉사 활동

#### ■ 추진 방향

- 전 직원이 사회봉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1% 나눔운동 전개
  - 복권과 관련한 '사랑의 운동' 홍보 추진, TV출연 등 검토

국무총리실  
2005 광복 60년  
추진위원회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올해는 1945년 을유년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지 어느덧 한 갑자를 돌아 그 의미가 각별한 해다. 6.15공동선언 5주년이 며,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고, 을사조약 100주년이기도 하다.

이에 2005년을 우리나라가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정부와 민간인사 60명으로 구성된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강만길 前상지대총장)’가 출범했다. 위원회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광복60년기



년사업추진기획단 이 지난해 12월8일 중앙청사 뒤 쌍용 플레티넘 빌딩 3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추진기획단은 홍윤식 단장(전 국조실 기획총괄과장)의 지휘 아래 4개팀 1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기획총괄팀’은 이태인 팀장(국조실)을 필두로 김홍국 서기관(서울시), 조연갑 사무관(국정홍보처), 이은영 주임(강남구청), 김지숙씨 등 5명이 기념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서무·예산 및 타부서 지원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진실과 화해팀’에는 전영웅 팀장(문화관광부), 최기용 사무관(국가보훈처), 박민영 박사(독립기념관) 등 3명이 근현대사 재조명과 관련된 사업을, 허정석 팀장(국정홍보처), 박노의 사무관(행정자치부), 이원범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명이 ‘평화와 희망팀’에서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관련된 사업을, 그리고 ‘미래와 세계팀’에는 이재풍 팀장(행정자치부)과 김창수 사무관(통일부)이 미래지향적 국가비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제고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기조를 ‘국민통합·국민참여·미래지향’으로 삼았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 광복 60주년의 참다운 의미를 정립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작은 주춧돌을 놓으려고 한다. 광복 60갑(甲)이 되는 해에 훌륭한 옥동자가 태어나기를 기대 해본다. **새미래**

### 미켈란젤로와 도나텔로

15세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도나텔로가 어느 날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한 개 구입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 대리석에는 여기저기 흠집이 있고 갈라진 틈도 눈에 띄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나텔로는 그 대리석으로 조각품 만드는 것을 그만 두고 반품을 했다.

도나텔로에게서 버림받은 대리석은 미켈란젤로의 눈에 띄었다. 미켈란젤로 역시 흠집을 발견했지만 그는 그 대리석으로 작품을 만들 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해서 완성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다비드 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만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다 해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행동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도나텔로는 대리석의 흠집에 마음이 쓰여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흠집 있는 대리석으로 위대한 다비드를 창조했다.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머뭇거리지만 말고 우선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거대한 도약은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작은 변화의 출발로부터 이루어진다.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5년 후 위대한 도약의 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서는 찾아오는 법이 없다.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만 기회는 그 찬연한 빛을 발하며 나타나는 것이다.

## 취약계층 혁신 토론회 결과

우리실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토론(Action Learning)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하기 위해 혁신워크샵(3.4~3.5, 천안교보생명연수원)을 개최하였다.

토론 진행방식은 워크샵 개최전에 KBS 스페셜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각자가 현상의 심각성,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자료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토론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토론회 8개 분임으로 나누어 진행보조자(facilitator)의 도움 아래 문제해결형 토론(Action Learning)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을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확대, 빈부격차 심화, 근로빈곤층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장이 미흡하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보호하고 빈곤탈출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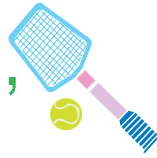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계층(3%)에 대해서는 기존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차상위계층(7%)에 대해서는 보호·지원의 틀(frame)을 구축하며, 차차상위계층(10%)에 대해서는 복지 수요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소득 하위20%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과 사회복지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기초수급자의 급여를 현행 all or nothing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해도 급여의 일부(의료·주거급여 등)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수석조정관실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향후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총리님 주재 전문가간담회 개최, 민관 합동 T/F를 구성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방안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새로운 틀(frame)을 올 상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새미래**





## 동호회 소개 : 국무총리실 ‘테니스회’



상쾌한 봄날, 산뜻한 유니폼, 깔깔한 코트, 라켓에 부딪히는 공의 경쾌한 울림!  
가슴에 밀려오는 짜릿한 흥분!

테니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당한 운동량과 게임의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매력 있는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실 테니스회’는 양질의 테니스 메니아 40여명의 모임으로 회원간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정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며, 년중 수시로 회원간 소모임으로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테니스대회에도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2002~2003년 : 8강, 2004년:16강)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테니스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무총리실 테니스대회’를 봄·가을 2회 개최하고, 주중 야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소모임을 매주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테니스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 직원(파견근무자 포함)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새미래

### ※ 국무총리실 테니스회 현황

- 회장 : 박기종 규계계 혁조정관
- 총무 : 권동태 과장(규계계 혁총괄과장)
- 회원 : 41명



국

선

도

## 국선도 단전호흡 예찬



<환경심리관 전경묵>

테, 회의를 주재하든 참석하든 바른 자세나 맑은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오십견, 고혈압, 목디스크로 고통받고, 허리, 무릎, 발목 등이 성치 않아 불편을 느끼고,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지내는 분들도 많다.

건강한 사람도 모처럼 등산을 하거나 평소에 자주 안하던 테니스, 골프 같은 운동을 하고 나면 종아리, 허벅지, 어깨의 근육통에 얼마간 시달리게 된다.

또한 건강진단 상 아무 이상도 없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되며 식사 중에 위가 부담스럽고 용변이 시원치 않고... 그래서 머리가 무거워 산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등등

이유는 오장육부(五臟六腑) 기능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심신이 나른해지는 춘곤증에 시달릴 때가 되어 간다. 식곤증은 아니더라도 하루의 일과 중 갖가지 이유로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을 갖게 된다.

더욱이 총리실은 업무 성격상 많은 회의를 접하게 되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탓이요, 우리 몸의 기혈(氣血)이 제대로 순환유통되지 않은 때문이다.

이는 97년도 매일 아침 일곱시부터 한 시간 이십분씩 종합청사 대회의실(19층)에서 몸 고르고(調身), 숨 고르고(調息), 마음 고르던(調心), 국선도(國天道) 단전호흡을 수련해 오면서 얻은 결론이다.

국선도는 무슨 신(神)이나 영(靈)을 모시는 종교가 아니고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을 얻고자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으로서, 제 몸을 닦아 깨닫고 마음빛을 밝혀 그 빛을 이웃에 전하라는 큰 가르침이다.

특히 국선도 수련과정에서 강조되는 개전일여(個全一如, 개체와 전체는 하나같다)와 대효지심(大孝之心, 하늘을 섬기고 크고 겸손한 마음)은 곧 생태운동이요, 생명운동이며, 환경운동인 것이다.

당시 함께 해오던 분들이 행자부, 외교부, 교육부, 통일부 등에 많이 계시지만 총리실에도 박기종님, 서정환님, 김효명님, 이용수님이진호님, 권용식님, 박남훈님, 김성환님, 정도영님 등 도반(道伴)들이 생각난다.

올해로 국선도 수련 9년차에 접어든다. 육체적 수련단계인 정각도(正覺道)의 3단계(중기단법, 건곤단법, 원기단법)를 마치고 통기법(通氣法)단계로 접어들었으나 이제서야 도의 길에 입문하는 기분이다. 새미래

## 2005년 3월 인사동정

3 March (1~16)

### ▶ 한덕수 국무조정실장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영전(3.14)

#### ▶ 정보관리직 운영을 위한 교육생 파견

(중앙컴퓨터아카데미 정보관리직 교육파견(3개월) 3.7~6.3)

- 총괄심의관실 기능 10급 반송희
- 규제개혁1심의관실 기능 10급 유정미

#### ▶ 신규(시보) 인사발령

- 7급 행정직 채용후보자 장진수  
(시보임용전 재경금융심의관실 실무수습을 명함, 3.8)
- 기능 10급 사무원 시보 이지숙  
(규제개혁2심의관실 근무를 명함, 3.3)



장진수



이지숙

#### ▶ 인사발령

- 국무조정실 이사관 이명규  
(규제개혁2심의관(개방직)에 보함, 3.2~07.3.1)
- 복권위원회사무처 사업관리과장 서기관 유주봉  
(국가보훈처 전출을 명함, 3.2)
- 국가보훈처 서기관 정성환  
(국무조정실 전입을 명함, 복권위원회사무처 사업관리과장에 보함, 3.2)
- 재경금융심의관실 행정주사보 서동훈  
(헌법재판소 전출을 명함, 05.3.4)



이명규



유주봉



장성환



서동훈

### ▶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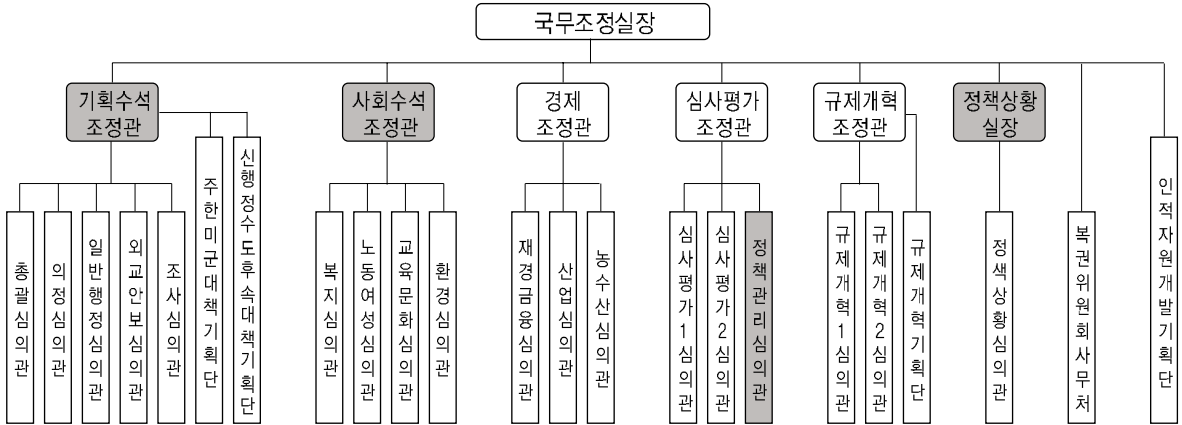
#### ▶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 제도의 복수 차장제 전환

- 정책평가·규제개혁 등 국무조정실 고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현행 수석조정관 체제를 복수 차장제로 전환
  - 기존 : 기획수석 조정관, 사회수석조정관
  - 변경 : 복수 차장(기획차장, 정책차장)
- 국무총리 내각 통할기능 보좌를 강화하고, 정책사안의 성격에 따른 국무조정실장·차장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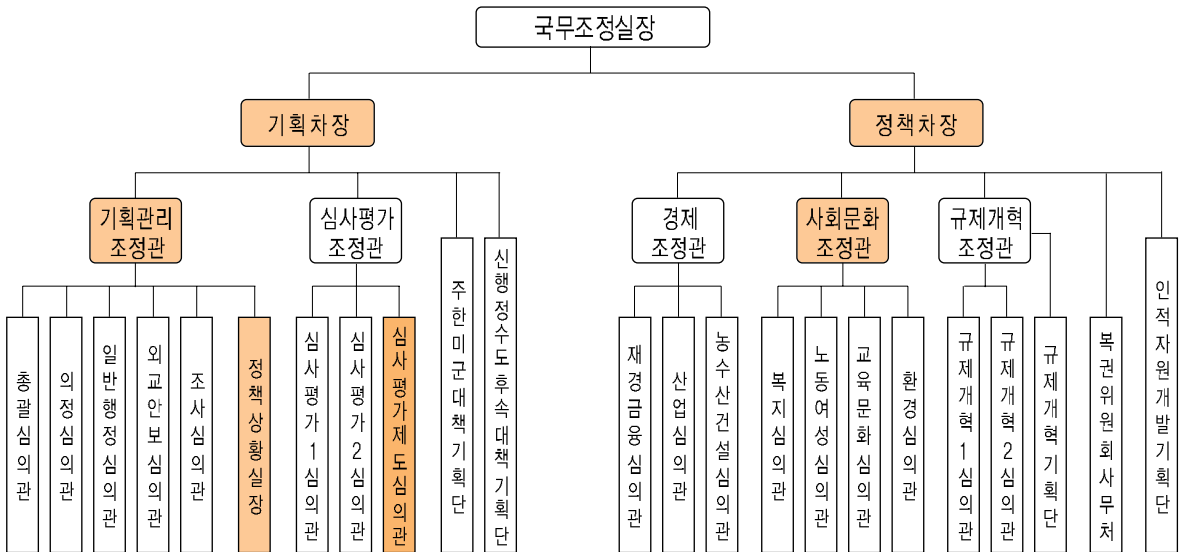
※ 주요 국정현안 및 법정부적 정책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실무적 정책사안 및 국무조정실 고유업무는 복수차장이 담당

## 국무조정실 조직개편 추진

### 〈현행〉



### 〈개정안〉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계획

### □ 제도개요

- 종전 직원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복지가 시행되어 직원의 기대와 필요충족에 미흡
- 직원 개인단위로 근속연수, 부양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매정된 복지예산(포인트) 범위내에서 직원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

### □ 기본방향

- 편성 예산 범위내에서 직원별 최대수혜가 가능토록 배정
- 복지서비스 항목 ·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절차 간소화
- 생명 등 보장보험은 전직원 동일한도로 의무가입

### □ 복지예산(포인트) 배정 : 1P=1,000원

- 편성예산 193백만원 범위내에서 근속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대 900P에서 최소 550P 배정
  - 우리실 평균 : 760P (행정자차부 : 550P)
  - ① 각 직원에 기본적으로 400P 부여
  - ② 근속기간에 따라 150~300P 부여
    - ▶ 5년 미만 : 150P ▶ 5년~10년 미만 : 200P
    - ▶ 10년~15년 미만 : 250P ▶ 15년 이상 : 300P
    - ※ 공무원수당규정에 관한 제7조 정근수당, 근속연수 계산 방식 적용
  - ③ 부양가족수에 따라 0~200P 부여
    - ▶ 배우자 100P
    - ▶ 부모, 자녀 : 각 1인당 50P, 최대 100P
    - ※ 공무원수당규정에 관한 제10조 규정 적용
- 근속기간, 부양가족 산정기준은 '04.12월 말 기준이며 년도중 변경 불가

### □ 적용대상

- 국무조정실을 원소속으로 하는 공무원
  - 국내파견자, 전문계약직, 질병 · 가사 휴직자는 포함되나 행불, 육아휴직은 의무항목만 지원
- 적용 제외자(국가공무원법 제71조, 공무원임용령 제41조)
  - 국외 파견자, 재외공관 공무원, 법정의무수행자
  - 고용 · 유학 · 연수 · 해외동반 · 병역휴직자

### □ 포인트 정산

- 년도중 퇴직 · 전출 등 적용제외 사유 발생시 발생시점까지 사용한 비용만 지급
- 년도중 전입 · 파견 복귀 등 지급사유 발생시 총 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잔여포인트 지급

### □ 복지서비스 적용항목

- 의무적 항목 : 사망 · 장해 · 암 및 의료비 보장보험
- 개인 직원별 선택 항목 : 건강검진, 학원수강 등

### □ 포인트 사용

- 각 개인별 산정 포인트에서 의무서비스 포인트를 차감후 나머지 포인트를 선택서비스 항목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미사용분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사용 불가

### □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 의무서비스 항목(보장보험)은 보장사유에 따른 비용발생후 총무팀에 개별적으로 청구(보험사에서 보장액 지급)
- 학원수강 등 선택적항목은 분기종료 10일까지 각 심의관실 · 기획단 운용담당자를 통해 총무팀으로 지급 청구 (급여지급시 지급)

### □ 시행기간 '05. 3. 1 ~ '05.12.31

새미래

## 제3기 국무조정실 직장협의회 소개



직장협의회 정현직 회장

### □ 국무조정실 직장협의회 발자취

- 2003. 7. 4 『국무조정실 공무원직장협의회 규정』 제정
- 2003. 7. 10 국무조정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2003. 9. 14 직장협의회 사무실 개소
- 2003. 12. 10 제2기 직장협의회 출범
- 2005. 1. 26 제3기 직장협의회 출범

### □ 제3기 직장협의회 출범과 회원현황

- '05. 1. 27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 제3기 직협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고 2월중 집행부 인선 및 사업계획 확정
- ※ 제3기 직협 집행부 현황
  - 회 장 : 정현직(인적지원 · 연구개발 기획단)
  - 부회장 : 이가형(복권위원회 사무처), 황 윤 경(총무팀)
  - 총무국장 : 김세필(복권위원회 사무처)

- 정책국장 : 강미향(주한미군 대책기획단)

가입대상	회원가입 인원 (단위: 명)			비 고
	남자	여자	계	
62	20	35	55	

※ 직급별 구성인원 : 6~ 7급(22명), 기능직 사무원(33명)

### □ 활동방향

- 회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유도를 통한 '함께하는 직장협의회' 실현
- 직장협의회를 직원의 창조적 지혜를 결집시키는 중심으로 자리매김
- 직장협의회가 근무환경 및 직원복지 향상, 각종 제도개선 등 혁신활동 선도

새미래



## 民間勤務 休職, 그 二年間の 學習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임성준〉

민간휴직을 통해 우리 국무조  
정실을 떠나 온 지 벌써 2년차  
에 접어들니다. 우리 실의 첫  
번째 민간휴직자인 까닭에 처  
음에는 ‘잘 하지 못하면 어찌  
나’ 하는 생각에 어깨가 몹시  
도 무거웠습니다. 나름대로 열  
심히 뛰어나다며 1년을 무사히  
보낸 지금도 그 책임의 무게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휴직을 결심한 것은 우선 민간이 바라보는 정부  
에 대한 시각을 인지하고, 정부정책(규제)이 기업 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보다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  
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공무원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함으로써 ‘변화’를 통해 자신의 능  
력개발을 도모한다는 목적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에 자신을 격려하면서도 이것이 무  
모한 도전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를 이념적 지표  
로 삼아 한국경제와 기업의 발전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1981  
년에 설립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대기  
업의 이익을 위한 연구기관이라는 막연한 외부 인식과는 달  
리 거시경제, 국제경제, 금융재정, 법 경제, 기업연구 등 다  
양한 경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규제연구센  
터까지 발족하여 연구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규제연구센터에 소속되어 규제개혁 연구와 함께 민간부문의  
규제개혁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정부 측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직 초반기에는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조직문화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나다만, 연구를 시작하고 정부에 규제개혁과제

들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잡고 민간근  
무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 측에서도 민간휴직  
공무원이 기존의 원내 박사들에 비하여 색다른 시각을 제공  
하거나 정책대안의 구체화에 관한 지적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을 높게 평가하면서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수행한 두 개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책으  
로 발간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보람이  
요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에 탄력적 근무시간, 행정적 잡무가  
없는 “결과물(성과)” 위주의 근무환경도 민간근무의 만족도  
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직사회는 외부파견 근무를 쉬었다오는 것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민간휴직 역시 ‘고액연봉 받고 잘  
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윤추구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간부문은 아  
무리 정부에서 나왔다 해도 놀고먹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며 그 만큼의 기여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민간휴직을 고  
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의 능력개발과 민간근무의 보  
람도 좋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도전정신  
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소한 그 기관  
에 있어서는 민간휴직자가 공직사회의 얼굴이 되는 만큼 높  
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새미래



주니어보드



**등록일:** 2005년 3월 2일

**발행일:** 2005년 3월 18일 통권2호

(격주 또는 월간 비매품)

**발행인겸 편집인:** 새미래(주니어보드)

이창수(팀장), 김진곤, 김세용, 권용식,  
신영진, 서진희, 유정미, 이순아, 육현수,  
진선미

**발행소:**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국무조정실



## 편집후기

새미래 창간호를 만들 땐 막막했었는데 막상 책이 나오고

직원들이 재밌게 읽는 것을 보니 어깨가 더 무거워 졌습니다.

책을 찍은지 얼마 되지 않아 새책을 찍기 위해 모이자는 메일이 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팀원들이 모여 이번 호에 실을 기사 얘기를 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기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탄생을 위한 작업은 언제나 신명납니다.

그런데 새미래 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직원과 가족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당초 제2기 주니어보드는 격주로 소식지를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약속을 수정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호부터는 직원들은 그룹웨어를 통해, 가족들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http://www.opc.go.kr) / 주요자료 → 발간자료)를 통해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日新又日新’ 하여 더욱 알차게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의 새미래 소식지가 당장에 조직에 변화를 가져오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권 두권 쌓여 가면서 국무조정실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새미래](#)

